ASEAN[1]경제공동체(AEC) 출범과 ASEAN 보험산업 전망[2]

채원영 연구원

- A.M. Best는 ASEAN 금융 서비스 부문 통합에 따른 역내 금융 인프라 확충, 높은 잠재 경제성장률, 다양한 재해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 증가 등으로 장기적으로 ASEAN 보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 ASEAN이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시키기 위해 발표한 청사진에 따르면 ASEAN 7개 국가[3]가 2015년까지 재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 통합을 마치기로 하였으나 개별 국가들의 보험산업 발전 정도가 상이하여 규제 통합 작업이 지연되고 있음.

  - ASEAN 각국의 금융구조가 매우 다르며 각국 금융시장이나 법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공통적인 시스템 구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어 AEC 출범이 201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음.
  - AEC 청사진에 따르면 역내 규제 정합성(compati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 자유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일부 ASEAN 국가들은 자국 금융규제를 개정해야 함.
    - 또한 2015년 말 AEC가 출범하게 되면 역내 금융 서비스 거래가 자유로워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국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
  - 보험 지급여력제도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는 RBC 제도를 채택한 반면, 베트남과 브루나이는 EU Solvency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경우 지급여력 규제가 없는데, 역내 보험산업 통합을 통해 이러한 국가들은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의 제도를 쉽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됨.
2) A.M. Best, "Market Prospects Improve for Insurers Ahead of ASEAN Integration"을 발췌, 요약함.
3) 7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임.

- 한편 보험산업 자본구조 강화를 위한 요구자본 상향조정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보험회사 통합이 이루어졌음.

〈표 1〉 ASEAN 주요 6개국의 보험회사 수 현황

(단위: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46	46	45	41	-
	손해보험	89	87	85	81	-
	합 계	135	133	130	122	-
말레이시아	생명보험	10	9	9	9	9
	손해보험	25	24	22	20	19
	합 계	7	6	6	6	5
필 리 핀	생명보험	32	30	309	29	25
	손해보험	84	84	81	76	69
	보험그룹	3	4	4	4	4
	합 계	119	118	115	109	98
싱 가 포 르	생명보험	17	17	17	19	20
	손해보험	49	51	51	55	56
	합 계	66	68	68	74	76
태 국	생명보험	24	24	24	24	24
	손해보험	71	69	68	65	64
	합 계	95	93	92	89	88
베 트 남	생명보험	11	12	14	15	16
	손해보험	27	28	29	29	29
	합 계	38	40	43	44	45

자료: A.M. Best.

-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자국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요구자본 기준을 상향조정 하였음.

〈표 2〉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최소 요구자본

구분	최소요구자본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865만 달러(1,000억 루피아) 2014년 12월 31일까지
	샤리아 보험회사	432만 달러(500억 루피아)
	재보험회사	1,730만 달러(2,00억 루피아) 2014년 12월 31일까지
	샤리아 재보험회사	865만 달러(1,000억 루피아)
필리핀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5,700만 달러(2억 5,000만 페소) 2013년 6월 30일까지 1,260만 달러(5억 5,000만 페소) 2016년 12월 31일까지 2,060만 달러(9억 페소) 2019년 12월 31일까지 2,970만 달러(13억 페소) 2022년 12월 31일까지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신생기업)	2,280만 달러(10억 페소)

자료: A.M. Best.

- 그러나 장기적으로 ASEAN 국가들의 금융서비스 통합이 이루어지면, 금융서비스 개선이나 투자확대, 금융산업 발전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발전은 ASEAN 보험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덜 발달한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은 성숙된 시장인 싱가포르 등의 선진 금융 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음.
  - 저소득 국가에 신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시장 확대를 통한 대형 금융기관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ASEAN내 상대적 고소득 국가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경제 성장세는 확대될 전망임.
  - 최근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대한 ASEAN 국가의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AEC 출범 이후 ASEAN 역내 교역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이 가속화 될 전망임.

- 또한 다양한 재해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가, 말레이시아의 타카풀(Takaful) 시장 확대 등으로 향후 ASEAN 지역보험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임.

  - ASEAN 지역은 국가별로 다양한 경제 발전 단계가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사업이 가능함.
  - 또한 2011년 태국 대홍수,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등 ASEAN 지역 자연 재해는 경제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보험 산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ASEAN 지역 보험회사들의 자본 규모는 이러한 대재해를 담보할 만큼 크지 않아 해외 재보험회사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말레이시아는 2013년 타카풀이 24.2% 성장한 세계 2위 이슬람 보험시장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인구 구조와 낮은 보험 침투도, 이슬람 금융에 대한 친화적인 제도 환경 등으로 향후 보험산업의 고성장세가 예상됨.
  - 그러나 자본 규모 확대와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은 ASEAN 보험회사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6월 말 현재 2개 생명보험회사와 5개 손해보험회사가 진출하였으나,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개 회사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으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5개 회사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에 진출하여 영업 중이나 2014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4] 모두 적자를 기록함.

- 또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전체 수입보험료 중 해외에서 거수된 수입보험료의 비중이 3%에 미치지 못함.
- ASEAN의 경우, 국가별로 발전 단계와 경제 상황 등의 편차가 커 해당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또한 ASEAN 경제 통합을 위한 각국의 보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A.M. Best, 금융감독원 등)

4) 손해보험의 경우, 인도 홍수, 필리핀 태풍 하이옌, 중국 우시 공장 화재 사고 등으로 손해율(73.8%)이 전년동기(50.4%) 대비 23.4%p 증가하여 보험영업이익이 4억 1,700만 달러 감소한데 따른 적자임. 2013년 상반기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4. 9. 25).